

한달 남은 파리올림픽...한국 "금메달 5개·종합 15위 목표"

진천 선수촌서 미디어데이 행사
김제덕·황선우·김한솔 등 참석
21개 종목 최대 142명 선수 출전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운영
시차 적응·훈련·컨디션 조절 도와



26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대한민국 선수단 기자회견에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국가대표 감독,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결의를 다졌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파리 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선수총장, 정강선 선수단장과 김제덕(양궁), 황선우(수영), 김한솔(체조) 등 한국 선수단의 간판선수와 지도자들이 단상을 밟았다.

전북체육회장이면서 이번에 한국 선수단장에 선임된 정강선 단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파리에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수단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상 예방과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재근 선수단 총감독은 "오늘을 계기로 파리 올림픽의 관심과 애정이 표출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최대 142명의 선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의 집단부진 탓에 우리나라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를 보낸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보다 90명,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때보다는 무려 170명이 적다.

육상의 티켓 확보 현황에 따라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 수는 141명 또는 142명으로 확정된다.

이기홍 체육회장은 "금메달 5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유지를 목표로 나선다"고 했고, 장재근 총감독은 "종목마다 현재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그 이상의 결과도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100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로 열리는 올해 33회 하계올림픽은 현지시간 7월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성대한 막을 올린다.

체육회는 7월 9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을

개최하며, 한국 선수단 선발대는 7월 11일, 본진은 7월 20일 각각 파리행 장소에 오른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육회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래 12년 만에 마련한 전초기지에서도 시차 적응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체육회는 파리 인근 퐁텐블로에 있는 프랑스 군 사시엘인 국가방위스포츠센터에 훈련 시설과 급식 지원 센터를 차렸다.

선수들의 원활한 적응과 심리 안정을 도모할 이

시설의 명칭은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며 7월 12일 문을 열어 파리 올림픽 폐회일인 8월 11일까지 운영한다.

16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촌하기 전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린다.

체육회는 한국에서 대동한 조리 전문가가 만드는 한식 도시락을 선수촌으로 배달해 한국인 특유의 밥심으로 메달밭을 일구게 할 것이다. /연합뉴스

'육상명가' 광주시청·'투척강자' 전남선수단 금빛 질주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광주, 200m 고승환·이민정
전남, 여 400m 이아영 등 우승



제7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200m 동반우승을 차지한 광주시청 이민정(왼쪽)과 고승환이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전국육상선수권대회서 '육상명가' 광주시청과 '투척강자'를 다수 보유한 전남선수단이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제7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은 육상 단거리를 비롯해 장애물, 투척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입상했다.

고승환·이민정(이상 광주시청)은 200m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고승환은 26일 열린 이번 대회 남자부 200m 결승에서 20초4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이전에 작성한 개인최고기록은 2년 전 대회에서 작성한 20초51이다. 이번 대회에서 고승환이 기록한 20초49는 2018년 세워진 한국신기록 20초40(박태건·강원도청)에 이은 남자 200m 두 번째 기록이다.

'여자 200m 최강자' 이민정은 25일 열린 대회 결승에서 24초21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다. 2위에는 24초42의 신현진(포항시청), 3위에는 24초49의 서지현(진천군청)이 자리했다.

광주시청 심재용 감독은 "고승환이 예선과 준결승에서 기록이 좋아서 한국신기록도 기대했는데 좀 어렵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개인최고기록을 쓴 만큼 올해 안에 한국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리기 위해서는 선수의 컨디션, 날씨 등 3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마무리 훈련에 집중해 하반기 다시 한번 기록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선수단의 입상도 이어졌다. 이아영(광양시청)은 여자 400m에서 55초44로 1위를 기록했고 남보하나(진도군청)는 3000m SC(장애물)에서 10분27초92의 기록으로 여자부 정상에 올랐다.

멀리뛰기에서는 김민수(장흥군청)가 7m80으로 남자부 1위에 올랐다.

포환던지기에서는 정일우(여수시청)가 18m05로 남자부 2위, 해머던지기에서는 여자부 박서진(목포시청)과 남자부 김진(장흥군청)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20kmW(경보)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세하(여수시청)가 1시간37분25초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앞서 파리올림픽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까지 '38초30 기록 깨기'에 나섰던 한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김국영, 고승환, 이시문, 이윤문)은 선수 컨디션상의 이유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대회 3일 차였던 지난 25일에는 계주팀에 대한 '한국산' 포상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제53회 전국종합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38초68'로 10년 만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대한육상연맹은 계주팀과 노승석 지도자에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댄스스포츠연맹 선수단이 '제21회 에메랄드블 전국댄스스포츠대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댄스스포츠연맹 제공>

광주·전남 댄스스포츠 선수단, 전국대회 휩쓸어

싱글댄스 라틴·스탠다드 등 금

광주·전남 댄스스포츠 선수단이 열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며 '제21회 에메랄드블 전국댄스스포츠대회'에서 선전했다.

최근 강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윤현정과 최나은(여수 월드 댄스스포츠)은 싱글댄스 라틴 3종목(삼바, 차차차, 룸바)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채영과 김하린(이상 광주예술고)은 고등부 싱글댄스 스탠다드 3종목(왈츠, 탱고, 퀵스텝)에서 각각 1위, 2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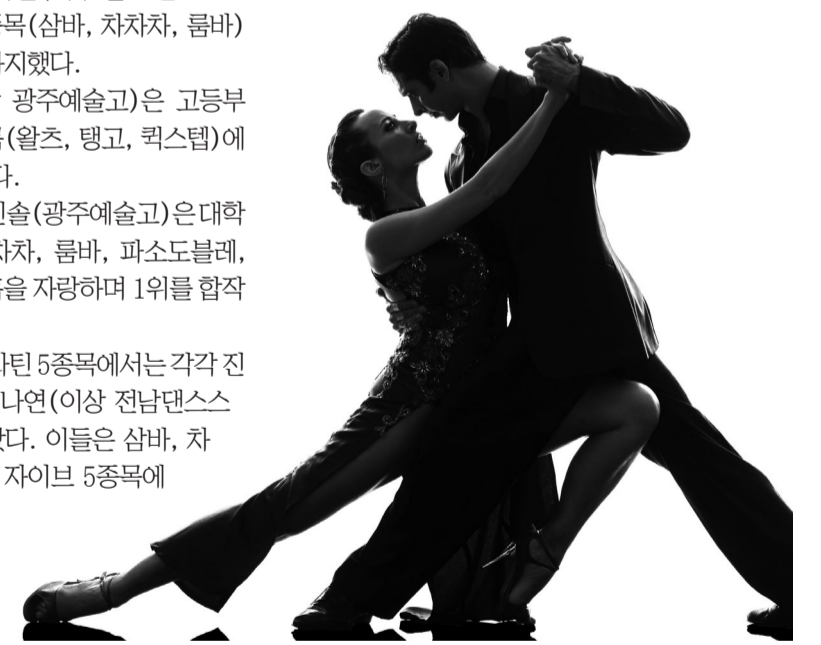
양준연(조선대)과 김민솔(광주예술고)은 대학부 라틴5종목(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1위를 합작했다.

일반부와 아마추어부 라틴 5종목에서는 각각 진인혁·곽미리와 김민수·김나연(이상 전남댄스스포츠연맹)이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5종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전남댄스스포츠연맹 김재웅 회장은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

수들, 그리고 학생 선수들까지 모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 꿈나무들이 더 많이 생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열심히 훈련해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 세계 주니어여자핸드볼선수권 노르웨이에 완패

27일 북마케도니아와 13~16위전

한국 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13~16위 전으로 밀려났다.

오세일 감독(광주도시공사)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결선리그 2조 경기에서 22-33(12-15, 10-18)으로 노르웨이에 완패했다.

이혜원(부산시설공단)과 차서연(인천시청)이 6골씩 넣으며 활약했고, 광주도시공사의 김서진도 5골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노르웨이를 꺾지 못했다.

결선리그 전적 2패가 된 대표팀은 27일 오후 10시 45분 홈팀 북마케도니아와 13~16위전을 치른다.

노르웨이는 결선리그 2조 3위를 기록하며 9~12위 결정전으로 향한다.

한국은 지난 20일 이번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

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33-20 완승을 거뒀다. 이어 21일 C조 2차전에서도 아르헨티나에 33-31로 완승을 기록한 한국은 C조 최종 3차전에서 헝가리에 17-32로 패하면서 조 2위로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이어 덴마크와 결선리그 첫 경기에서 23-29로 지면서 8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도 패하며 13~16위전을 치르게 됐다.

한편 한국은 2022년 대회에서는 19위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베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베에로

이창훈 개인전